

내수를 살리자

D M Z 다가가면 만날 것 같은 존재

경기도 안보여행

◇임진각 평화누리

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넓고 평화로운 잔디 언덕을 만날 수 있다. 넓게 펼쳐진 임진각 평화누리의 잔디 언덕을 바라보면, 이곳이 북한 언저리라는 사실은 금세 잊게 된다. 실랑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는 망배단 뒤편에는 녹슨 장단역 증기기관차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포탄에 맞아 멈춰선 기관차로 현재는 경기관광공사가 복원해 전시·관리 중이다. 당시에 맞은 총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이들에게도 인상적인 안보 관광자원이다. 망배단 뒤편에 가려져 있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꼭 가봐야 하는 곳이다. 임진각 평화누리는 서울역에서 문산행 기차를 탄 뒤, 문산역에서 임진강역행 기차를 타면 갈 수 있다.

◇도라산역

우리나라의 마지막 역이다. 현재 기차는 도라산역 바로 전 역인 임진강역에서 멈춰선다. 도라산역까지 가려면 군(軍)의 허가를 받아 관광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도라산역은 임진각 주차장에 있는 DMZ 관광안내소에서 표를 끊고, 일정 인원이 채워져야 버스로 갈 수 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유명한 통일대교가 보인다. 이곳부터가 민통선, 즉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다. 이곳을 지난 버스는 도라산역에 이른다. 일반적인 지하철역처럼 생겼지만, 기차는 다니지 않는다. 철도가 있는 역 내부로 가기 위해선 표를 사야 한다. 도라산역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침묵이 보관돼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도라산역이 완공된 2002년에 '이 철도가 한민족을 이어줄길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도라전망대

도라산역을 지난 버스는 도라전망대에 다다른다. 이곳은 민간인이 북한 땅(정확히 개성)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김일성 동상까지도 보인다. 개성이 눈 앞에 펼쳐지기에,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왼쪽으로는 개성공단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북한의 최남단 마을인 대성동 마을이 보인다. 너무나 생생한 분단 현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다.

◇제3땅굴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에 위치한 제3땅굴은 총 길이 1천635m·폭 2m·높이 2m에 이른다. 한여름 무더운 바깥 공기와 달리 땅굴 내부는 20도도 되지 않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은 경기도 DMZ 투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지난 2002년 땅굴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미니 열차형의 셔틀승강기가 설치됐다. 이후 2004년에는 지름 3m의 도보 관람로를 신설해, 보다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운행 소요시간은 왕복 18분 정도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땅굴이지만, 북측에서 남침을 목적으로 판 땅굴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묘해지는 곳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 휴전선 철조망 너머로 아스라이 북한 땅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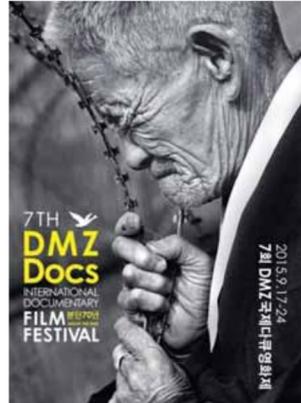
한국지방신문협회·TV조선 공동기획

경기

DMZ(DeMilitarized Zone)는 연간 약 600만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DMZ는 철책선으로 둘러 쌓여 있어 실제 출입이 불가능하다. 일반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곳은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주변과 제3땅굴, 도라전망대 같은 일부 장소에 한정돼 있다. DMZ, 정확히 말하면 'DMZ 관'을 가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상에서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간다.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DMZ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지만, 아무래도 관광객들은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의 DMZ를 많이 찾는다. 경기도 DMZ로 떠나보자.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임진각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성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이곳에서는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연중 내내 운영되고 있다.



DMZ 문화행사 다채

◇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평화·생명·소통을 주제로 한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는 모두 43개국에서 출품된 10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탈북 화가 '선무'의 작품세계를 통해 들여다본 남북한의 불편한 관계, 예술적 자유, 인류의 보편적 가치,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아담 소버그 감독의 '나는 선무다'가 선정됐다.

◇2015 파주포크페스티벌

국내 유일의 포크 음악축제인 '2015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오는 12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푸른 잔디 위에서 개최된다. 음악다방 '씨씨봉' 출신이자 국내 포크 1세대인 송창식을 필두로 전인관밴드·YB·박학기·채환·유리상자 등 실력과 포크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 바버렛츠·랄라셋 등 신세대 포크 그룹과 '제3회 파주포크송 콘테스트' 대상 수상팀인 주마루드의 축하공연도 마련돼 있다.

◇DMZ 자전거투어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3월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DMZ 일대 자전거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임진각에서 통일대교와 군내삼거리, 초평도를 돌아 다시 임진각까지 돌아오는 17.2km 구간을 자전거로 달리게 되며, 이달만 월 2회 행사를 실시한다. 가족·단체 참여가 늘어, 장단반도 지역과 도라산 평화공원 일대로도 코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 당 1만 원이며, 해당 300명의 인원 제한이 있어 미리 신청해야 한다. <끝>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경인일보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파주 안보여행 팀

제3땅굴 입장권부터 사세요

도라산역~도라전망대~제3땅굴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임진각 평화누리에 위치한 DMZ 관광안내소에서 표를 산 뒤,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버스를 타면 전부 둘러보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월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휴·안·림**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케익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